

#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 실태분석

- 행복한 생활을 위한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

Time Use and Leisure Activity Status Analysis of Single-Parent-Family  
- Focusing on Living Experience for a Happy Lif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소 영\*\*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nior Researcher Yoon, So-Yo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한부모가족의 자원관리 실태 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grasps the living condition of Single-Parent-Family, and compares Single-Parent-Family with Dual-Parent-Family to analyze necessary factors to enjoy the happier life. The data from '2009 the Korean Time Use Survey' and '2010 the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NSKF)' are used for this study. ANOVA, Duncan test, Correlation Analysis(SPSS for windows, Ver. 18.0) are used for statistical method. Here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istribution of living-time-usage of the Single-Parent-Family is different from that of Dual-Parent-Family. Second,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leisure time, time distribution, and the content of activity was observed based on the gender of Single-Parent-Family.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family leisure activity time among Dual-Parent-Family, Mother-Single-Parent-Family, and Father-Single-Parent-Family in holidays. Fourth,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Dual-Parent-Family and Single-Parent-Family, after looking at life satisfaction degree in work-family-leisure life experience.

Key Words : 한부모가족(Single-Parent-Family), 시간사용(Time Use), 여가활동(leisure activity), 행복한 생활(a happy life)

\*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윤소영(soyoung@kcti.re.kr)

## I. 서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반적 생각은 이들이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의 해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과중으로 인한 만성피로 및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박선영 외, 2008)가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사회는 2010년 기준으로 미혼자녀 동반 부부가구 총수와 비교해 4가구당 1가구가 한부모가족(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이라고 볼 때, 이들이 다른 가족에 비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즉, 이들 역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서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본다.

한부모가족의 행복과 생활만족도를 논의하는 방식은 다른 가족과 다르지 않다. 이에 Seligman (2002), 그리고 Sirgy와 Wu(2009)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생활속의 4가지 경험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행복은 쾌락주의이론(hedonism theory), 욕구이론(desire theory), 객관적 결과주의(objective list theory), 균형이론(balance theory)에 근거하여 즐거운 삶(a pleasant life), 열중하는 삶(a engaged life), 의미있는 삶(a meaningful life), 균형있는 삶(a balanced life)이 그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일중심적인 생활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말해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본다(윤소영, 2010a). 그러나 앞서 밝

힌대로 일-가족-여가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이 시간자원에서 절대적으로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즐거움과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방향은 개인의 여가활동과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윤소영, 2010a). 즉 구체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하며, 이로인해 삶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여 오히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삶과 생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삶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는 접근을 벗어나,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다른 가족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삶의 균형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은 일-가족-여가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 구조는 양부모가족과 어떻게 다른가?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09 생활시간자료’ 원자료이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즐겁고 몰입하는 삶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의 여가활동은 ‘2009 생활시간자료’를, 가족여가활동은 ‘2010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양부모가족과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생활영역(일-가족-여가 측면)과 관련된 주관적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과 생활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설

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고찰

###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

한부모가족이란 한모가족 또는 한부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母) 또는 부(父)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미혼자 등으로서 아등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2008년 개정). 즉 이혼, 사망, 별거,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0년 현재 전체가구의 9.2%에 해당하는 1,594천 가구로, 2005년의 1,370천 가구와 비교해 16.3%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특히 한부모가구 중 여성한부모가구와 남성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의 각각 79.1%와 20.9%에서 2010년에는 78.2%와 21.8%로, 남성한부모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2010년 현재 한부모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남성한부모가구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구 비율은 1990년 56.0%에서 2005년 36.6%, 2010년 29.7%로 감소하였고,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 비율은 1990년 8.9%에서 2005년 29.1%, 2010년 32.8%로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자녀교육과 교육의 문제, 건강문제, 사회인식의 문제 등으로 제시된다(김안나·한정원·김양미, 2010). 특히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의 해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과중으로 인한 만성피로 및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외, 2008). 이러한 문제 중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존의 성별분업과 남성생계자 부양방식,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자녀양육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남성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문제가 주요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한부모가족의 가구주 성별과 가구의 특성에 따라 문제나 어려움으로 여기는 영역이 다르므로 가구주 특성별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실태연구, 한부모 빈곤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정책 연구 등으로 대별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실태연구는 주로 사회 및 경제적인 현실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재림·옥선화, 2001; 진미정·김은정, 2005; 최명선 외, 2007)이나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양육문제(이애재, 2000; 이소영·옥선화, 2002; 조성연, 2003; 옥선화 외, 2004; 김순옥 외, 2012),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조희선, 1991; 구정화, 2005; 현은민, 2008), 생활만족도와 건강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현은민 외, 2006; 손진분·박미려, 2007), 부자가족의 현황분석(문은영, 2011, 노정자·강기정, 2012) 등이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빈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심화과정을 다루고 있으며(석재은, 2004; 변화순 외, 2006; 김수정, 2007; 김안나, 2009), 여성한부모가구의 안정된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방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김혜영, 2008; 송다영·김유나, 2008) 남성한부모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김학주, 2006; 고은주·김진옥, 2009; 유태균·박효진, 2009)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박명선, 2006; 강지원, 2007; 박복순, 2008)와 현재 한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최연실, 2005; 황은숙, 2008; 김승권, 2010) 등이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실태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이를 통해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사회정책 제안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연구가 다분히 소득구성과 물질적 어려움에 집중하거나 가족관계적 접근이 대다수이다.

## 2. 행복한 생활과 여가경험

Martin Seligman(2002) 그리고 Sirgy와 Wu(2009)에 의하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생활속의 4가지 경험속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the pleasant life), 만족스런 활동에 고도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것(the engaged life), 보다 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경험하는 것(the meaningful life),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균형을 경험하는 것(the balanced life) 이다. 이러한 4가지 경험에 대한 설명은 쾌락주의이론(hedonism theory), 욕구이론(desire theory), 객관적결과주의(objective list theory) (Seligman & Royzman, 2003), 그리고 균형이론(balanced theory) (Sirgy & Wu, 2009)에 근거한다.

여기서 쾌락주의에 근거한 행복은 즐거움의 느낌을 극대화하고 고통의 느낌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행복한 생활(a happy life)이 곧 즐거운 생활(a pleasant life)이라고 본다. 따라서 즐거움을 더 만끽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생활속에서 습관화하고 환경의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eligman, 2002). 한편, 욕구이론에서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 욕구충족에 중점을 둔다. 즉 여기서의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Griffin, 1986)이다. 욕구이론에 근거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몰입경험

(Csikszentmihalyi, 1988)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가능하다(Seligman, 2002). 여기서 몰입경험(flow experience)이란 인간의 삶에서 즐거움에 넘쳐 행위 자체에 완전히 몰두한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 상태(Csikszentmihalyi, 1988)로서, 이러한 몰입은 놀이(play)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몰입경험을 통한 행복은 재미를 수반한 여가(또는 놀이)활동에 정신을 빼앗겨 열중하는 생활(the engaged life)을 의미한다. 그리고, 객관적 결과주의(Nussbaum, 1992; Sen, 1985)에서 행복은 직업적 성취, 우정,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물질적 안락함, 시민정신, 아름다움, 교육, 사랑, 지식, 양심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a meaningful life)을 영위하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다. 개인이 여가생활을 통해 얻는 기쁨이나 만족이 공동체의 유익성에 대한 관심과 그로 인해 얻는 행복감을 수반하게 된다면, 개인의 여가활동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은 단일의 생활 영역으로 얻은 만족감은 매우 제한적이며, 매우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인간발달의 완전한 욕구체계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균형(balance in life)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가족역할 갈등은 생활에 대한 불만족 수준과 관계된다는 많은 경험적 연구(Collins and Killough, 1989; Edwards and Rothbard, 2000; Lewis and Cooper, 1987; Sturges and Guest, 2004; Wiley, 1987; 윤소영, 2010a)에서 재인용들이 존재한다. 또한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균형잡힌 역할체계를 이룬 사람들이 불균형하게 삶의 한 영역에만 집중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웰빙수준 또는 행복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Marks and McDermid, 1996; Bhargava, 1995; Chen, 1996; Frisch, 2006; 윤소영, 2010a)에서 재인용)들도 존재한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행복중심사회를 추구

하면서, 전생애주기에 걸쳐 일-가족-여가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연령통합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정경희, 2004; 윤소영, 2010b). 즉 인간의 일생은 3가지 중요한 삶의 영역, 즉 일-가족-여가의 세가지 다른 축의 조화를 통해 나타나므로 (Rapoport & Rapoport, 1975),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가지 생활영역을 생애주기에 걸쳐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도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기 보다는 일-가족-여가 생활에 대한 균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에 관한 시간설계가 필요하다. 즉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원 이외의 시간자원과 여가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함으로써 균형적인 삶을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해서 조영희(2004)는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활동영역별로 시간량 분석과 비교는 가능하지만, 실제 그러한 시간구조를 갖는 이유나 질적인 내용 측면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자원과 여가자원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의 자원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여가자원에 대한 실태를 다양한 내용구조를 통해 분석하며, 이를 통해 나타난 주요한 생활영역과 관련된 주관적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한부모가족의 일과 가족, 그리고 여가생활

한부모가족은 가구주의 성별과 상관없이 가계부양자와 가사노동자로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한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가족에 대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사용이나 자원관리 실태는 다를

것이다.

우선, 여성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로,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활동은 시간관리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활동시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가사노동자와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시간 제약은 심리적인 문제나 시간부족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편리한 가정용품이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 경제적인 지출이 부가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진 여성한부모가족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책임과 이중역할에 대해 부담을 가지면서도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제한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의 표준을 낮추거나 다른 개인적인 시간을 줄여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제 경제적 빈곤은 여가시간과도 밀접히 관련된다고 보고된다(조영희, 2004). 선행연구(김외숙, 1991; 홍성희·문숙재, 1991; 조영희, 2004)에서 경제적 요인이 여가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자신의 여가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기 쉽다. 더욱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일 수 있다.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위한 시간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한부모가족이 자녀의 부적응문제로 인해 가족내 갈등과 긴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조흥식 외, 2006), 공동의 여가활동과 관심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요구된다.

한편, 남성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여성한부모가족보다는 적은 편이지만(김미숙 외, 2000), 대다수의 남성한부모가 저학력과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다. 더욱이 남성한부모는 그동안 배우자에 의해 관리해왔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문제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자신의 부모나 친척이외에는 경제적인 지출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한부모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더욱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 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남성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모성부재로 인해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녀의 동일시 대상의 상실은 역할수행의 혼란과 함께 사회적 위축감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조흥식 외, 2006). 따라서 남성한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부모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가족여가형태의 도움이 요구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삶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양부모가족과 비교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원제약조건이 다른 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활동영역별 사용한 시간량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시간사용은 주요생활영역(일-가족-여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셋째,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가족여가활동의 내용은 차이가 있는가?

넷째,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주관적 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자료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과 양부모가족의 차이 분석에 기초하여 한부모가족의 자원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파악이 가능한 모든 가능한 원자료(‘2009 생활시간조사’와 ‘2010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2009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이 전국 약 8,09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20,263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12일간)과 9월(14일간)의 2차에 걸쳐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하루 24시간의 활동형태를 10분 간격으로 ‘주행동’ 및 ‘동시행동’을 구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조사대상 가구원은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동안 기입하는 응답자 직접 기입식 조사방법(after-coded diary)을 사용하여, 응답자가 행동한 목적에 따라 행동을 9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144개 소분류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2009 생활시간조사’에서 개인관련사항에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부모와 18세미만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양부모가족)와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모의 성 구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으로 재분

류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시간일지 수는 양부모 가족의 5,168일, 한부모 가족의 254일(남성한부모가족 74일, 여성한부모가족 180일)이다. 이는 전체 시간일지 40,526일 가운데 13.38%에 해당한다.

한편, ‘2010 가족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일반가구(2,500가구)와 일반가구에 속한 15세 이상의 가구원(4,754명)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가구의 경제적 특성, 가족인식 및 태도,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과 돌봄, 가정생활 양식,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등 7개 주제에 대해서 가구대표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CAPI (Computer-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의 일대일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2010 가족실태조사’에서 전체 가구원수(N=4,754)의 가족형태 중 양친+자녀가족(58.3%), 그리고 한부모+자녀가족(6.8%)만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역시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모의 성 구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sup>1)</sup>으로 포함한 경우는 2,773명의 양부모 가족의 가구원, 324명의 한부모가족의 가구원(남성한부모가족 128명, 여성한부모가족 196명)이다. 본 연구는 가정생활양식 주제 중에서 가족여가<sup>2)</sup> 관련 문항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이 함께 보낸 하루평균 여가시간(평일/휴일), 가족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평일/휴일), 가족여가의 장애요인, 부모-자녀가 함께 하길 희망하는 여가활동(1순위), 환경변화에 따른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여가시간의 변화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 일반 사항, 일과 돌봄, 가족여가 등의 영

역에서 조사된 경제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가족여가생활만족도 등의 만족도 항목(5점 척도)과 주관적행복도(10점 척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자원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차이를 비교하고, 특히 한부모의 성별 차이에 따라 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에 시간자원에 대한 분석은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에서 9개 행동영역별로 양부모가족, 남성한부모가족, 여성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가자원 및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가족여가활동 실태와 관련된 모든 변인에 대해 양부모가족, 남성한부모가족, 여성한부모가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행동영역별 시간량, 만족도, 여가시간의 차이는 세 집단의 평균값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가활동, 장애요인, 희망여가활동, 여가시간의 변화 등에서 세 집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가족생활여가만족도 등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변인과 주관적 행복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절차는 SPSS for windows(Ver. 18.0)로 진행되었다.

- 1) 가족여가활동을 분석한 것이므로 양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의 부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한 가족원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 2) 여기서 가족여가란, 함께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족원이 일하는 시간(작업상의 일, 가사일, 수업 등)이나 생리적 필수시간(수면, 식사 등)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 IV. 한부모가족의 자원관리 실태 분석

### 1. 주요생활영역의 시간사용 실태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시간사용량을 활동영역별로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생활영역(일-가족-여가)에서 시간사용의 배분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양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 및 여성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량을 활동영역별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이때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및 기타 활동영역에서 양부모, 남성한부모가족, 그리고 여성한부모가족 집단간의 시간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1일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한부모가족이 약 5시간 18분으로 가장 길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한부모가족이 약 4시간 38분, 양부모가족이 약 4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관리시간은 여성한부모가족이 가장 길어서 약 2시간 33분으로 나타났으며, 남성한부모가족은 약 1시간 29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보살피기와 관련해서도 남성한부모가족의 시간이 가장 적어 하루에 약 8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시장노동시간과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여성한부모가족이 약 7시간 37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남성한부모가족이 약 6시간 56분, 양부모가족이 약 6시간 48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가족과 비교해 한부모가족이, 그리고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남성한부모가족과 비교해 여성한부모가족이 노동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활동에 대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에서의 차이로 나타나, 여성한부모가족의 여가활동시간이 1일 평균 약 3시간 15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부모가족과 비교해서 남성한부모가족은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한부모가족은 노동시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지만 가사노동이나 가족보살피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으며, 오히려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활동영역별 시간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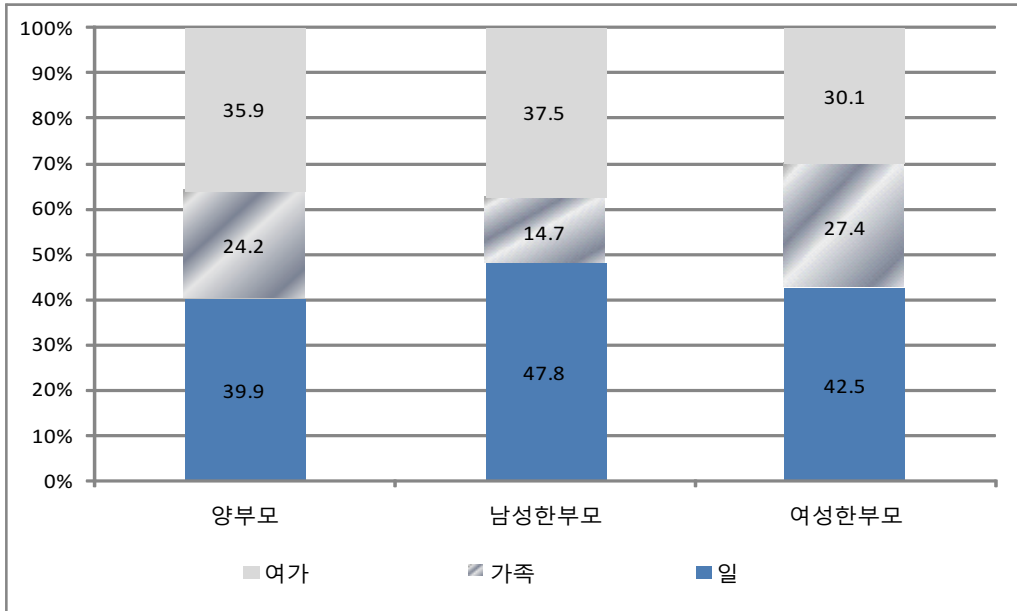
(단위: 분)

| 생활시간활동영역  | 양부모(N=5168) |          | 남성한부모(N=74) |          | 여성한부모(N=180) |          | F         |
|-----------|-------------|----------|-------------|----------|--------------|----------|-----------|
|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
| 개인유지      | 639.4       | A        | 622.3       | A        | 635.2        | A        | 1.143     |
| 일         | 253.4       | A        | 318.0       | B        | 278.6        | AB       | 3.714 *   |
| 학습        | 1.8         | A        | 0           | A        | 0            | A        | 0.616     |
| 가정관리      | 121.7       | B        | 89.6        | A        | 153.4        | C        | 7.877 *** |
| 가족보살피기    | 33.3        | B        | 8.4         | A        | 25.6         | B        | 7.950 *** |
| 참여 및 봉사활동 | 2.0         | A        | 5.4         | A        | 2.1          | A        | 1.064     |
| 교제 및 여가활동 | 227.9       | AB       | 243.8       | B        | 195.1        | A        | 4.688 **  |
| 이동 및 기타   | 1001.3      | B        | 936.2       | A        | 970.3        | AB       | 3.546 *   |

\* p<.05, \*\* p<.01, \*\*\* p<.001, grouping : Duncan test

자료원 : 통계청(2009),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원 : 통계청(2009), '2009 생활시간조사'

<그림 1>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생활영역별 시간배분 실태

한편,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일-가족-여가 생활영역에서 시간사용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때, 일 영역은 일활동과 학습활동에 소요한 시간을, 가족영역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한 시간을, 그리고 여가영역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양부모가족의 일-가족-여가 영역에 사용한 시간은 평균 255.2분, 155분, 229.9분이며, 남성한부모가족은 각각 318분, 98분, 249.2분이며, 여성한부모가족은 각각 278.6분, 179분, 197.2분으로 나타났다<sup>3)</sup>. 각 가족의 일-가족-여가생활에 사용한 시간의 합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각 생활영역별 사용한 시간의 비율을 정하여 시간배분을 살펴보았다.

특히 양부모와 남성한부모가족 및 여성한부모

가족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8개의 하위영역별로 시간사용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때 남성한부모가족의 경우 종교활동은 가장 적은 시간 사용하지만 스포츠 및 집밖 레저활동시간이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시간은 가장 많은 시간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종교활동시간은 양부모가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스포츠 및 집밖레저활동이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이더라도 남성한부모가족나 여성한부모가족에 따라 시간사용구조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3) 세집단 모두 개인유지에 사용한 시간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이 비슷한 정도이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2)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사용 비교

단위 : 분

|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 양부모(N=5168) |          | 남성한부모(N=74) |          | 여성한부모(N=180) |          | F          |
|----------------|-------------|----------|-------------|----------|--------------|----------|------------|
|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
| 교제활동           | 12.9        | A        | 12.7        | A        | 14.1         | A        | 0.157      |
| 일반인 학습         | 7.0         | A        | 6.4         | A        | 8.0          | A        | 0.068      |
| 미디어이용          | 126.7       | A        | 131.1       | A        | 112.7        | A        | 1.684      |
| 종교활동           | 11.1        | B        | 0           | A        | 18.4         | B        | 3.807 *    |
|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 1.4         | A        | 1.4         | A        | 0.5          | A        | 0.381      |
| 스포츠 및 집밖레저활동   | 31.0        | AB       | 38.8        | B        | 18.2         | A        | 4.434 *    |
|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 35.6        | B        | 52.3        | C        | 21.1         | A        | 10.065 *** |
| 교제 및 여가관련 물품구입 | 1.3         | A        | 0.3         | A        | 1.4          | A        | 0.504      |

\* p<.05 , \*\* p<.01, \*\*\* p<.001, grouping : Duncan test

자료원 : 통계청(2009), '2009 생활시간조사'

## 2. 가족여가생활 실태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가족여가생활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가족여가시간, 가족여가활동, 가족여가 제약요인, 희망여가활동, 여가시간의 변화 등에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일과 휴일동안 가족이 함께 보낸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대해 양부모가족, 남성한부모가족, 여성한부모가족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표3 참조), 평일동안의 가족여가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휴일동안에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휴일동안 양부모가족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약 3시간 8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남성한부모가족이 약 2시간52분, 여성한부모가족이 약 1시간 33분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2009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자 개인의 시간량 비교로 남성한부모가족의 가족원 개인의 여가시간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족의 가족원, 여성한부모가족의 가족원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여기서는 가족이 함께 보낸 여가시간을 분석한 것으로 주말동안 양부모가족

의 부부와 자녀가 함께 여가활동을 보낸 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으로 남성한부모가족의 아버지와 자녀가 보낸 시간, 그리고 여성한부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보낸 시간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여성한부모가족의 가족원 개인의 여가활동시간량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보내는 활동시간도 적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평일과 휴일동안 가족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가활동별 참여빈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평일의 경우 가족여가 시간량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참여한 활동내용에서 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은 70% 이상이 TV시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양부모가족은 TV시청 이외에도 산책(15.7%), 공원가기(4.5%), 여행(4.2%), 문화예술관람(3.6%)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소 나타났다.

한편, 휴일의 양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부모가족의 경우 TV시청의 비율은 평일에 비해 더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산책(10.0%), 등산(8.3%), 여행(6.8%), 공원가기(6.8%), 문화예술관

〈표 3〉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가족여가시간 비교

단위: 분

| 가족여가활동       | 양부모(N=2773) |          | 남성한부모(N=128) |          | 여성한부모(N=196) |          | F        |
|--------------|-------------|----------|--------------|----------|--------------|----------|----------|
|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
| 평일 평균 가족여가시간 | 104.3       | A        | 104.1        | A        | 93.2         | A        | 1.644    |
| 휴일 평균 가족여가시간 | 188.7       | B        | 172.1        | AB       | 153.1        | A        | 6.047 ** |

\* p<.05, \*\* p<.01, \*\*\* p<.001, grouping : Duncan test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표 4〉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평일 및 휴일의 가족여가활동 비교

| 가족유형<br>가족여가활동 | 평일           |             |             | 휴일           |             |             |
|----------------|--------------|-------------|-------------|--------------|-------------|-------------|
|                | 양부모          | 남성한부모       | 여성한부모       | 양부모          | 남성한부모       | 여성한부모       |
|                | N (%)        | N (%)       | N (%)       | N (%)        | N (%)       | N (%)       |
| 문화예술관람         | 98 (3.6)     | 2 (1.9)     | 4 (2.2)     | 104 (3.8)    | 1 (0.9)     | 7 (3.7)     |
| 여행             | 116 (4.2)    | 2 (1.9)     | 2 (1.1)     | 188 (6.8)    | 0 (0.0)     | 2 (1.1)     |
| (놀이)공원가기       | 124 (4.5)    | 2 (1.9)     | 2 (1.1)     | 189 (6.8)    | 1 (0.9)     | 2 (1.1)     |
| 주말농장           | 33 (1.2)     | 0 (0.0)     | 0 (0.0)     | 48 (1.7)     | 1 (0.9)     | 0 (0.0)     |
| 등산             | 69 (2.5)     | 2 (1.9)     | 15 (8.1)    | 229 (8.3)    | 2 (1.9)     | 22 (11.7)   |
| 산책             | 433 (15.7)   | 2 (1.9)     | 7 (3.8)     | 277 (10.0)   | 7 (6.5)     | 8 (4.3)     |
| 스포츠활동          | 79 (2.9)     | 3 (2.8)     | 0 (0.0)     | 60 (2.2)     | 1 (0.9)     | 0 (0.0)     |
| 스포츠 경기관람       | 10 (0.4)     | 0 (0.0)     | 1 (0.5)     | 16 (0.6)     | 0 (0.0)     | 2 (1.1)     |
| 자원봉사활동         | 6 (0.2)      | 0 (0.0)     | 2 (1.1)     | 4 (0.1)      | 0 (0.0)     | 0 (0.0)     |
| 종교생활           | 39 (1.4)     | 0 (0.0)     | 4 (2.2)     | 178 (6.4)    | 4 (3.7)     | 15 (8.0)    |
| 쇼핑             | 45 (1.6)     | 0 (0.0)     | 2 (1.1)     | 134 (4.9)    | 0 (0.0)     | 9 (4.8)     |
| 게임             | 49 (1.8)     | 7 (6.5)     | 3 (1.6)     | 38 (1.4)     | 3 (2.8)     | 1 (0.5)     |
| TV시청           | 1499 (54.3)  | 80 (74.1)   | 131 (70.8)  | 992 (35.9)   | 76 (71.0)   | 87 (46.3)   |
| 비디오보기          | 33 (1.2)     | 6 (5.6)     | 1 (0.5)     | 33 (1.2)     | 4 (3.7)     | 4 (2.1)     |
| 외식하기           | 47 (1.7)     | 0 (0.0)     | 5 (2.7)     | 171 (6.2)    | 4 (3.7)     | 20 (10.6)   |
| 목욕/사우나/찜질방     | 17 (0.6)     | 0 (0.0)     | 0 (0.0)     | 64 (2.3)     | 0 (0.0)     | 5 (2.7)     |
| 노래방            | 1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기타             | 61 (2.2)     | 2 (1.9)     | 6 (3.2)     | 35 (1.3)     | 3 (2.8)     | 4 (2.1)     |
| 전체@            | 2759 (100.0) | 108 (100.0) | 185 (100.0) | 2760 (100.0) | 107 (100.0) | 188 (100.0) |

@ 결측치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람(3.8%)의 비율은 평일과 비교해 더 증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평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던 종교생활(6.4%), 외식(6.2%), 쇼핑(4.9%)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성한부모가족도 평일과 비교해 TV시청(46.3%)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등산(11.7%), 외식하기(10.6%), 종교생활(8.0%), 문화예술관람(3.7%) 등의 활동에서 참여율이 높아지

〈표 5〉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가족여가활동의 제약요인 비교

| 제약요인            | 가족유형 | 양부모  |         | 남성한부모 |         | 여성한부모 |         |
|-----------------|------|------|---------|-------|---------|-------|---------|
|                 |      | N    | (%)     | N     | (%)     | N     | (%)     |
| 너무 바쁜 일         |      | 323  | (11.7)  | 16    | (14.7)  | 39    | (20.7)  |
| 경제적 부담          |      | 461  | (16.7)  | 22    | (20.2)  | 37    | (19.7)  |
| 여가프로그램 정보부재     |      | 242  | (8.8)   | 8     | (7.3)   | 1     | (0.5)   |
| 여가시설/장소 제약      |      | 251  | (9.1)   | 14    | (12.8)  | 27    | (14.4)  |
| 가족공동의 시간 어려움    |      | 547  | (19.8)  | 15    | (13.8)  | 30    | (16.0)  |
| 가족공동 관심사 부재     |      | 135  | (4.9)   | 15    | (13.8)  | 11    | (5.9)   |
| 돌봄가족의 존재        |      | 94   | (3.4)   | 2     | (1.8)   | 3     | (1.6)   |
| 자녀교육문제          |      | 50   | (1.8)   | 0     | (0.0)   | 0     | (0.0)   |
| 신체적 피곤          |      | 261  | (9.5)   | 8     | (7.3)   | 16    | (8.5)   |
| 기타              |      | 44   | (1.6)   | 4     | (3.7)   | 7     | (3.7)   |
| 해당없음            |      | 353  | (12.8)  | 5     | (4.6)   | 17    | (9.0)   |
| 전체 <sup>@</sup> |      | 2761 | (100.0) | 109   | (100.0) | 188   | (100.0) |

@ 결측치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한부모가족은 평일과 비교해 휴일에도 TV시청(71%)의 비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며, 그 외 여가활동의 참여율도 비슷한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량은 여성한부모가족이 가장 적지만, 활동내용면에서 보면 여성한부모가족은 주말에 TV시청이외에도 다른 활동에 참여하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남성한부모가족의 경우 평일과 휴일 동안 별 차이없이 TV시청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분석된다.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표5 참조)로는 양부모가족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고(19.8%),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며(16.7%), 일이 너무 바빠서(11.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일이 너무 바쁜 것(20.7%)과 경제적인 부담(20.2%19.7%)이 가장 큰 원인이 되며, 그밖에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렵고(16.0%), 여가

시설이나 장소의 제약(14.4%)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남성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부담(20.2%)과 일이 바쁜 이유(14.7%)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가족 공동의 시간(13.8%)이나 공동의 관심사(13.8%)가 없는 것, 그리고 여가시설과 장소가 부족한 것(12.8%)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길 희망하는 여가활동 1순위에 대한 응답(표6 참조)에서도 양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 및 여성한부모가족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양부모가족이 희망하는 가족 여가활동 1순위는 여행인데 비해, 남성한부모가족이나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휴식활동이 1순위로 나타나고 2순위에서 여행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남성한부모가족이나 여성한부모가족이 가지는 경제적 제약조건이나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해 여행을 통해 지불되는 비용의 부담과 휴식활동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여가활동이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표 6〉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희망하는 가족여가활동 비교

| 부모-자녀가<br>함께하길 희망하는<br>여가활동 | 가족유형 | 양부모  |         | 남성한부모 |         | 여성한부모 |         |
|-----------------------------|------|------|---------|-------|---------|-------|---------|
|                             |      | N    | (%)     | N     | (%)     | N     | (%)     |
| 문화예술관람                      |      | 348  | (12.6)  | 13    | (12.0)  | 29    | (15.5)  |
| 문화예술참여                      |      | 182  | (6.6)   | 4     | (3.7)   | 2     | (1.1)   |
| 스포츠경기관람                     |      | 217  | (7.9)   | 4     | (3.7)   | 13    | (7.0)   |
| 스포츠활동                       |      | 193  | (7.0)   | 7     | (6.5)   | 7     | (3.7)   |
| 여행                          |      | 836  | (30.3)  | 23    | (21.3)  | 37    | (19.8)  |
| 취미/오락활동                     |      | 350  | (12.7)  | 15    | (13.9)  | 28    | (15.0)  |
| 휴식                          |      | 336  | (12.2)  | 24    | (22.2)  | 40    | (21.4)  |
| 사회활동                        |      | 101  | (3.7)   | 3     | (2.8)   | 3     | (1.6)   |
| 기타                          |      | 10   | (0.4)   | 0     | (0.0)   | 0     | (0.0)   |
| 없음                          |      | 187  | (6.8)   | 15    | (13.9)  | 28    | (15.0)  |
| 전체 <sup>@</sup>             |      | 2760 | (100.0) | 108   | (100.0) | 187   | (100.0) |

@ 결측치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표 7〉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환경변화에 따른 가족여가시간의 변화

| 가족여가<br>시간의 변화  | 가족유형 | 휴대폰/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br>가족여가시간의 변화 |             |             | 주40시간근무제/주5일수업제로 인한<br>가족여가시간의 변화 |             |             |
|-----------------|------|--------------------------------|-------------|-------------|-----------------------------------|-------------|-------------|
|                 |      | 양부모                            | 남성한부모       | 여성한부모       | 양부모                               | 남성한부모       | 여성한부모       |
|                 |      | N (%)                          | N (%)       | N (%)       | N (%)                             | N (%)       | N (%)       |
| 전에 비해 더 많아짐     |      | 104 (3.8)                      | 1 (0.9)     | 4 (2.1)     | 324 (11.7)                        | 1 (0.9)     | 8 (4.3)     |
| 전과 비슷함          |      | 1451 (52.6)                    | 69 (63.9)   | 69 (36.5)   | 1368 (49.6)                       | 62 (57.4)   | 56 (29.9)   |
| 전에 비해 더 적어짐     |      | 835 (30.2)                     | 25 (23.1)   | 60 (31.7)   | 558 (20.2)                        | 17 (15.7)   | 52 (27.8)   |
| 잘 모르겠음          |      | 228 (8.3)                      | 4 (3.7)     | 33 (17.5)   | 243 (8.8)                         | 7 (6.5)     | 33 (17.6)   |
| 해당없음            |      | 143 (5.2)                      | 9 (8.3)     | 23 (12.2)   | 267 (9.7)                         | 21 (19.4)   | 38 (20.3)   |
| 전체 <sup>@</sup> |      | 2761 (100.0)                   | 108 (100.0) | 189 (100.0) | 2760 (100.0)                      | 108 (100.0) | 187 (100.0) |

@ 결측치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보인다는 측면에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해 가족여가시간이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주40시간근무제나 주5일수업제 실시로 인해 가족여가시간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7). 일반적으로 양부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의 구분없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여가시간은 변화가 없이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해(31.7%), 그리고 주40시간근무제나 주5일수업제로 인해 과거보다 가족여가시간이 더 적어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한부모가족의 가족여가시간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환경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남성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 비슷한 양상을 띄지만, 주40시간근무제나 주5일수업제의 변화로 인해 양부모가족의 경우 가족여가시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는 휴일동안의 가족여가시간과 가족여가활동의 다양성 측면과 연관될 것이다.

### 3.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도의 관계

한부모가족의 시간자원과 가족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와 함께, 이러한 가족자원에 대해 한부모가족이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만족도는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생활영역을 구성하는 일-가족-여가 영역과 관련하여 경제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가족여가생활만족도 등에서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았다(표8 참조). 그 결과, 경제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가족여가생활만족도 모두 세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때, 경제생활만족도는 남성한부모가족의 평균(mean=2.79)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으로 여성한부모가족(mean=2.62), 양부모가족(mean=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한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의 경제생활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여성한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의 경제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대변해준다.

노동만족도에 대해 세 집단 모두 3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지만, 여성한부모가족(mean=3.00)과 남성한부모가족(mean=3.01)에 비해 양부모가족(mean=3.42)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사분담만족도 역시 세 집단 모두 3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지만, 여성한부모가족(mean=3.13)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남성한부모가족(mean=3.29)과 양부모가족(mean=3.38)의 만족도는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여가생활만족도는 남성한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남성한부모가족이 가장 낮고(mean=2.71), 그 다음은 여성한부모가족(Mean=2.91)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족의 가족여가생활만족도는 평균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가족생활여가만족도 등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변인과 주관적 행복도의 관계를

(표 8)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도 비교

단위 : 점수

| 만족도와 행복도  | 가족유형 |          | 양부모(N=2773) |          | 남성한부모(N=128) |          | 여성한부모(N=196) |  | F |
|-----------|------|----------|-------------|----------|--------------|----------|--------------|--|---|
|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평균           | grouping |              |  |   |
| 경제생활만족도   | 3.30 | C        | 2.62        | A        | 2.79         | B        | 68.228 ***   |  |   |
| 노동만족도     | 3.42 | B        | 3.01        | A        | 3.00         | A        | 25.003 ***   |  |   |
| 가사분담만족도   | 3.38 | B        | 3.29        | B        | 3.13         | A        | 12.448 ***   |  |   |
| 가족여가생활만족도 | 3.15 | C        | 2.71        | A        | 2.91         | B        | 26.260 ***   |  |   |
| 주관적 행복도 # | 7.04 | B        | 6.31        | A        | 6.21         | A        | 47.486 ***   |  |   |

\*\*\* p<.001, grouping : Duncan test

척도 : 1) 매우 불만족 3) 보통 5) 매우 만족 ; # 1) 매우 불행 ~ 10) 매우 행복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표 9〉 주관적 만족도 변인과 행복도의 상관관계

(N=3,097)

|           | 주관적행복도   | 경제생활만족도 | 노동만족도   | 가사분담만족도 | 가족여가생활만족도 |
|-----------|----------|---------|---------|---------|-----------|
| 주관적행복도    | 1.000    |         |         |         |           |
| 경제생활만족도   | .493 *** | 1.000   |         |         |           |
| 노동만족도     | .333 **  | .388 ** | 1.000   |         |           |
| 가사분담만족도   | .233 **  | .220 ** | .284 ** | 1.000   |           |
| 가족여가생활만족도 | .379 **  | .435 ** | .331 ** | .330 ** | 1.000     |

\*\* p<.01, \*\*\* p<.001

자료원 :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든 주관적 만족도 변인과 행복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주관적행복과의 관계에서 경제생활만족도와와의 점수(0.49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여가생활만족도와와의 점수(0.379), 노동만족도(0.333), 가사분담만족도(0.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행복도와와의 관계에서 경제생활만족도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여가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순으로 관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주관적행복도와 가사분담만족도의 관계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양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 및 여성한부모가족의 주관적행복도의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표 8 참조), 상대적으로 각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수준이 낮게 나타난 여성한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주관적 행복도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시간배분과 여가활동 실태분석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위한 생활영역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을 부모의 성별로 구분하여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

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부모가족과 비교해 한부모가족은 생활 시간 사용의 배분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남성한부모가족은 노동시간은 길지만 상대적으로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 시간은 적으며, 여가활동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노동시간량과 가족책임을 위한 시간비율이 더 길어,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에 할당하는 시간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부모 성별에 따라 가정관리나 가족보살피기의 역할이 달라지고, 그 결과 여가시간의 사용량이나 시간배분 구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노동시간과 가사노동 및 가족보살피기의 시간을 합한 전체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측면에서 삶의 균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족의 남성한부모의 여가활동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이나 스포츠 및 집밖 레저활동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었던 반면, 여성한부모가족의 여성한부모의 여가활동은 다른 활동영역에서는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종교활동에서만 양부모가족의 부모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밝힌대로 한부모가족의 성별에 따라 여가시간량이나 시간배분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 뿐 아니라 그 활동내용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단위 여가활동과 관련해서 양부모가

족과 한부모가족의 가족단위 여가활동은 평일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휴일의 경우 양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이더라도 부모의 성별에 따라 여성한부모가족의 가족여가활동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동안 가족이 함께 보내는 여가활동의 내용 측면에서도 양부모가족과 비교해 한부모가족의 가족여가활동이 TV시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휴일의 경우 여성한부모가족과 남성한부모가족의 가족여가활동 내용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한부모가족이 가족여가시간량은 적으나 주중에 비해 주말동안 TV시청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남성한부모가족은 휴일에도 평일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변화에 따라 가족여가활동시간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즉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해, 그리고 주40시간근무제나 주5일수업제로 인해 과거보다 가족여가시간이 더 적어졌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한부모가족의 가족여가시간량이 적다는 사실과 함께 여성한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일-가족여가 생활영역과 관련된 생활만족도 측면을 살펴본 결과 경제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가족여가생활만족도 등의 차원에서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비해 양부모가족의 만족도 수준이 모든 차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한부모가족은 가사분담만족도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한부모가족은 경제생활만족도와 가족여가생활만족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각 가정의 제한된 자원과 자원제약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섯째, 주관적 행복도와 관련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행복도와 의 관계에서 경제생활만족도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여가생활만족도, 노동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나 지원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의 지향점은 주요한 생활영역의 균형과, 즐겁고 몰입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제한된 자원의 문제와 이로 인한 불균형적인 삶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이들의 삶이 균형적이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에서 나타난 결과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균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전생애적인 접근을 기초로 지원방안과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행복이나 생활만족도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영역은 무엇인지, 이러한 생활영역에 대한 지원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시간배분과 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하나의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 두가지 다른 연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기초적인 실태분석에 집중하였다. 즉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요인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심층 연구는 추후 발전된 연구를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1) 강지원(2007).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 정책. 보건사회연구 29(2). 30-54.
- 2) 고은주·김진옥(2009). 한부모가구의 빈곤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219-236.
- 3) 구정화(2005).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김미숙·박민경·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5)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의 빈곤원인과 빈곤 위협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7(1). 93-133.
- 6) 김순옥(2012).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연구 고찰-가족학 전문학술지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113-128.
- 7) 김승권(201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2010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 8) 김안나(2009). 외환위기 이후 여성빈곤의 실태와 빈곤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여성학 25(3). 71-107.
- 9) 김안나·한정원·김양미(2010).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집.
- 10)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69-376
- 11) 김학주(2006). 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3). 73-87.
- 12) 김혜영(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7-37.
- 13) 노정자·강기정(2012).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45-163.
- 14)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15) 박명선(2006). 독일의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 연구. 사회과학논총 22. 85-109.
- 16) 박복순(2008).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복지 정책. 한국한부모가정학 1(1). 41-73.
- 17)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2008).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집.
- 18) 변화순·김혜영·윤홍식·한지숙(2006).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집.
- 19)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 167-194.
- 20) 손진분·박미려(2007). 한부모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45-65.
- 21) 송다영·김유나(2008).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 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한국가족복지학 22. 131-159
- 22)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 23) 옥선화 외(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관계망 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24) 유태균·박효진(2009). 여성가구주 빈곤가구와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간의 빈곤 탈피 영향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5(3). 29-58.
- 25) 윤소영(2010a).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서 여가 경험에 대한 접근. 여가학연구 5(2). 1-13.
- 26) 윤소영(2010b).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03-115.
- 27) 이소영·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

- 특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 28) 이애재(2000). 편부모가족 청소년의 부모, 자녀관계와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1). 69-93.
- 29)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105-131.
- 30)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7. 11-26.
- 31) 조성연(2003). 여성한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양육 방법.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579-593.
- 32)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 33)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34) 조흥식 외(2006).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 35) 진미정·김은정(2005).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 163-188.
- 36) 최명선 외(2007).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75-95.
- 37) 최연실(2005). 한국에서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현황과 방향. 사회과학연구 20. 1-15.
- 3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39) 통계청(2009).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40) 현은민(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41) 홍성희·문숙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53-174.
- 42) 황은숙(2008).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3-45.
- 43) 현은민·임보래·장경문(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 44) Csikszentmihalyi, M. 1988. Introduction in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5) Griffin, J. (1986). Well-being: Its meaning, measurement, and moral importance. Oxford: Clarendon Press.
- 46) Rapoport, R. & Rapoport, R. N.(1975).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47) Seligman, M. E. P. & Royzman, E.(2003). Happiness: The three traditional theories, authentic happiness newsletter July 2003 (<http://www.authentic happiness.org/news/news6.html>)
- 48)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49) Sirgy, M. J. & Wu, J. (2009). The pleasant life, the engaged life, and the meaningful life: What about the balanced life?. J. Happiness Stud 10. 183-196.

- 투 고 일 : 2012년 12월 24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1월 25일